8월 월례토론회 보고

# 과거청산의 차원과 과제

월례학술발표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운동에서 의미를 지니는 미연구분야나 사건 등에 대해 연구자나 운동가들이 발표와 논의를 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진행된다. 8월의 주제는 「민주화이행과 '역사청산'」. 손호철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조희연교수(성공회대)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준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손석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유시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호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단 전문위원, 조정환 갈무리 출판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조희연교수의 발제는 우리나라 과거청산의 현재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과거청산의 차원 및 운동의 국가화 문제와 관련하여 문부식 논쟁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한국의 과거청산의 현 상황을 조희연 교수는 모순적이고 과도기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 모두에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계기라 할 "87년 6월항쟁은 군부정권을 퇴진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이지만 6.29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면에서 실패"였으며, 이러한 6월항쟁의 불완전성은 이후의 과거청산의 불완전성과 이어진다. 다른 한편 한국의 현재 자체도 모순적이다.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각축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가해자와 희생자가 모두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조교수는 한국민주화운동의 모순상황 자체를 인정하고자 한다. 민주개혁이 지체되고 후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제도화되어 정책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진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운동의 목표인 권리의 회복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국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민주화 성과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현재의 투쟁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적 투쟁"인 것이다.

## "한국의 현 과거 청산은 모순적이고 과도기적"

또한 조교수는 운동의 국가화 및 과거청산의 다양한 차원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문부식논쟁'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듯 문부식씨는 일상의 파시즘, '우리안의 광기'를 우려하였고, 운동권의 내면적인 '과거청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주화운동의 국가화와 제도화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내면적 반성을 수반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운동의 박제화를 결과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조교수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속에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온 운동 내부의 문제점들을 성찰적으

로 바라보자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일상적 파시즘을 국가 파시즘과 동일한 차원에 놓아" 국가 폭력의 구조적 측면과 결정적 영향을 간과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어진 토론 역시 위 두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조교수처럼 한국민주화운동의 현국면의 모순성에 공감한 지적들이 있었다. 현재 한국은 과거청산의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다시 이를 뒤엎는, 즉 이 두 법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정호기)에 대한 지적 등이 그것이다. 반면 현단계의 모순성을 지적한 조교수에 대해, 현국면의 한계를 보다 강조한 관점들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 "운동의 국가화는 운동을 경직시키고 물신화시켜 세계를 변화시키는 활력을 침식"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에서 진행되는 이 과거청산의 이면에는 "전과 다름없이 학생이 체포되고 시민이 경찰에 구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장에서 정리되고 자본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점령"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조정환).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위해서 운동의 국가화(국가주의)가 필요하지만, 국가기구 내 수구세력의 저항이나 제도적 미비 등의 요인 등 한계로 인해 국가에게 민주화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유시춘). 또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모두 실패했다고 보아야 하며(손석춘).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요직에 여전히 반민주세력이 포진하고 있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30-40%밖에 안됐다"(김준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문부식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대체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상의 국가-사회구조적 파시즘과 현실 모순에 대한 그의 인식에 대해서는 매서운 비판이 가해졌다. 즉 그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크로파시즘과 마이크로파시즘에 대한 성찰의 마당과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적 폭력과 저항폭력의 등치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유시춘).

## "과거청산만큼 현재 청산이 중요"

이어 논의는 민주화운동의 과제로 이어져 한국 민주화의 냉엄한 현실을 재확인하고 연대와 새로운 주체의 형성 등 과제에 관한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화가 지체되고 있고 여전히 반개혁세력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신발을 조여매고 민주화를 위해서 새로이 매진해야 될 것이다"(김준곤). "새롭게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주체를 발견하고 새롭게 형성해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며, 특히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손석춘). 즉 현재 한국에서 "민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유시춘)의 문제이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지속 문제 등 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의 방법과 영향의 문제에서 연대를 하고 힘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이다"(유시춘).

토론회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민주화운동의 현재의 과제가 다시금 강조되었고 우리 사업회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즉 한국 민주화와 관련 "국가화의 특수한 형태가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반민주적 관행들이 계속 남아있어도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청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손호철).

즉 민주화운동 기념이 과거의 기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영역들을 민주화운동기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정리 송병헌 학술연구부장)